

꽃꽃 모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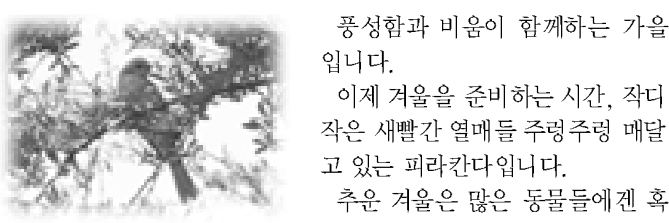
옥정호에서 만난 '수리취' -하남미(익글익글여수환경운동연합)를 받침-

박근호의 바다이야기



올해는 때아닌 가을적조가 발생하여 양식장의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가져왔는데 이번 적조는 여름 적조가 사라진 뒤 일부 연안에 남은 담수 유입과 일조량 증가의 영향으로 증식해 발생하였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상승,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적조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가을적조는 2006년 2009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이다.

김혜진의 자연이야기



풍성함과 비움이 함께하는 가을입니다.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시간, 작디작은 새빨간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피라칸다입니다. 추운 겨울은 많은 동물들에겐 혹독한 시련의 계절이네요!

그래도, 이 피라칸다의 열매들이 도심의 새들에게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피라칸다 나무아래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날아오는 직박구리, 콩새류, 멧비둘기들을 만나 보세요!

사무식 소식

- 1. 여수환경연합총회준비위원회에서는 여수환경연합 총회준비위원회에서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012년 사업평가와 2013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회원님들의 폭넓은 의견과 사업계획을 들려주세요. 또한 2013년 여수환경연합 집행위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위원은 회원 가입한지 2년 이상이면 누구든 자천 및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추천을 바랍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문의 : 사무국(061-682-0610, yosu@kfem.or.kr)
 - 담당 : 문갑태사무국장 (010-7574-1843, mgt@kfem.or.kr)

- 2. 차량계약했습니다. 13년된 스타렉스 차량을 새차로 바꾸기 모금운동을 한 결과 6개월간 13,476,600원 이 모금되었습니다. 모금에 함께 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회원님이 모금해주신 소중한 기금으로 환경운동에 필요한 곳에 운송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모금해 함께 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더불어, 모금에 약정하신 회원님들은 10월부터 회비가 인출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차량모금(목표 : 2500만원)은 2012년 12월 까지 계속 진행되오니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선집중

작물들이 계속 쓰러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살아도 괜찮은 건가요?

-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정부와 피해마을 주민간의 불통은 계속되고 있다.



구미 불산유출사고 영향지역 안전대책수립과 역학조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 및현장주민설명회 - (사)시민환경연구소

주민건강검진 이야기를 하면서 답을 피했다. 정부합동조사단 방문하고 그 다음날은 유영숙 환경부장관이 연이어 마을을 방문했지만 주민들이 가장 알고 싶은 문제에 대해 누구도 속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정부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마을주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걸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실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사고 당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밀측정기가 아닌 간이측정기로 사고지점 5m 이내와 주변지역 북쪽 700미터 및 남동쪽 약 1.3km, 사고지점 500미터 주변에 대하여 측정조사를 했으며, 측정조사 결과 사고지점 5m에서 1ppm, 사고주변지역에 대한 500m(방향 없음, 2회), 700m(북쪽, 1회), 1.3km(남동쪽, 2회) 세 개 지점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한 결과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기자회견에서 (사)시민환경연구소 김경수 부소장은 동서남북 4방향으로 각각의 거리에 따른 측정이 되지 않아 주변지역으로 불산이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으며 정부 환경전문연구기관이라고 자칭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이처럼 허술하게 대응한 점에 대해 비판했다.

구미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기측정자료를 문서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로만 전달보고 사고현장의 불산 농도가 1~5ppm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농도인 30ppm에 미치지 못했다고 발표했으며, 주민대피를 해제하고 50미터 반경 밖의 업체는 정상가동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일종한 교수(인하의대 직업환경과)는 불산으로 안전한 농도는 존재하지 않다고 말했다. 산업환경기준에 8시간 노출 기준으로 시간 가중치 평균으로 0.5ppm으로 규정되어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말하고 있는 30ppm 기준의 근거는 IDLH(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and Health Level)인데, 이 농도는 30분 이내에 도망쳐야 비가역적인 건강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고 언급했다.

불산(불화수소산, HF)은 일반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나 산업보전 및 불산을 접해본 근로자들사이에서는 무서운 독성물질로 알려진 물질이다. 이처럼 강력한 무색의 독성물질인 불산은 유리 및 금속을 녹이는 성질로 유리 가공이나 반도체에 주로 사용한다. 불산은 물에 잘 녹을 뿐만 아니라 끓는점도 낮아 공기중에 쉽게 떠다니는 물질이며, 인체에 특히 흡입독성이 강하고 뼈를 녹이는 강력한 독성물질이다.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급성독성에 의한 만성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이러한 무서운 독성물질이 8톤이나 유출되었는데도 사고시 이러한 물질이 사람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민들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또한 사고 이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구미시 어디에도 구미 불산유출사고 관련 내용은 없었다. 과연 구미에서 불산유출사고가 있기는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사고가 지난지 일주일일이 지난 후에야 구미시에서는 사고수습현황과 '알기 쉬운 화학물질 정보요약서(?)'라는 불산 관련 자료를 올려 놓은 상황이며, 6일 구미시는 피해마을주민들 일부만 일시적인 이주를 결정했을 뿐이다.

주민대피 관련해서 기자회견에서 박정임 교수(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는 미국 교통부(DOT)의 예를 들어 유해물질 유출의 경우 규모에 따라 소규모의 경우 사방 90미터로 일단 노출지역 격리 및 바람부

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가 "우리 협동조합에서는 가치가 급여의 일부"라는 말을 했다. 영리 은행보다 고위직의 급여는 낮지만 일에서 느끼는 보람이 크다는 뜻이다. 통장에 찍혀 나오진 않지만 이제 지급 받은 것이 가치라는말에 공감했다.

더불어,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기업 형태에 관심이 쏠렸다. 자본 건물의 규모를 키워가는 대형마트, 점점 더 주변을 채워가는 대기업 슈퍼마켓들. 그들이 커갈수록, 많아질수록 삶은 더 팍팍해 지고 씁쓸이는 더 줄여가야 하는 상황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 대기업들은 이윤이 늘어날수록 결국 자기 배만 채우는 자본주의의 기업 형태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천국인,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교육, 의료, 연금 등 안정된 사회복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믿음과 신뢰가 또 다른 이유란다. 친구, 가족, 다른 모든 타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주 높다는 것이다. 신뢰, 협동에 기반 하는 협동조합이라는 기업 형태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공동체의 산물이 된 것이다.

녹색평론 2012년 9-10월호 대안적 삶, 세계협동조합을 읽고 - 김유진(환경운동연합회원)

자신이 받고 있는 급여의 액수에 만족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도 항상 더 많은 상여금과 보너스를 기대 할 테니 말이다. 더불어, 초임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더구나 계약직 직원 채용가는 대기업 슈퍼마켓들. 그들이 커갈수록, 많아질수록 삶은 더 팍팍해 지고 씁쓸이는 더 줄여가야 하는 상황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 대기업들은 이윤이 늘어날수록 결국 자기 배만 채우는 자본주의의 기업 형태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천국인,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교육, 의료, 연금 등 안정된 사회복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믿음과 신뢰가 또 다른 이유란다. 친구, 가족, 다른 모든 타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주 높다는 것이다. 신뢰, 협동에 기반 하는 협동조합이라는 기업 형태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공동체의 산물이 된 것이다.

녹색평론의 이번 호를 보면서, 계약이체로 지급 받지 못한 밀린 월급을 받은 기분이 들었다. 협동조합은행

는 방향으로 1.6km의 인근 주민을 보호하고 대규모의 경우 사방 270미터로 바람부는 방향으로 4.8km로 인근 주민보호를 언급했다. 이처럼 유해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대피기준이 있었더라면 당과 같은 주민의 불안과 건강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우리의 요구- 구미시는 위장 주민안전을 위해 사고 인근 마을주민들을 모두 이주시켜야 한다.- 불산가스에 노출된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재난지역을 하루빨리 선포하고 주민건강영향 및 주변 수질과 토양 등 환경영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추가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의 업무 집행격차와 무사안일한 태도로 주민들을불산노출위험으로 내몬국립환경과학원장을 비롯한 환경부 장관을 처벌하라- 장기적으로 위험물질을 다루는 공장 인근의 안전이격거리 지정, 실효성이 있는 사고 대책매뉴얼을 만드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유해물질안전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2012.10.7글 : 고도현((사)시민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 담당 : 고도현

구미 불산 사고, 무엇이 문제였나요? - 불산 대응의 문제점과 책임 그리고 향후 활동 계획



◀ 사고 현장 인근 마을 불산에 노출된 소 (좌). 자발적으로 대피하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 (우 상).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대책 없이 문 닫은 중앙사고조사본부 구미상황실

■ 불산대응의 문제점과 책임 근본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공장을 사람이 사는 곳 근처에 허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현행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주민들에게 미리 위험한 물질을 다루고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대비해야하는지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구미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 다. 불산은 공기 중으로 확산이 빨리 일어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피입니다. 하지만, 구미에서는 2시간이 지나서야 주민들의 대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고방제를 위해서 하동지동 달려온 소방관들이 불산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물을 뿌린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부가 저지른 중대한 실수는 충분한 실사를 안전하다는 중분한 근거와 확인 없이 화학물질사고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해제한 것입니다. 환경부의 조치로 주민대피령이 해제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향후 활동 구미불산유출사고는 작업장의 안전관리 문제로 발생한 중대한 산업재해며, 화학물질 관리 부실이 드러난 환경재앙입니다. 또한 사고긴급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고이기도 합니다.환경연합은 지역단체들과 함께 사고지역의 주민과 노동자 건강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같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함께 건강영향조사와 사고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보고서도 작성하겠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번 사고의 정확한 정보와 문제점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환경연합 전문기관인 시민환경연구소와 환경법률센터는 화학물질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위해 연구와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께 이번 사고 발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책임을 물어주십사 요구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앞으로 활동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글 : 최준호(환경연합 전국사무처) - 담당 : 환경연합 전국사무처 생명활동국

승자독식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호혜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협동조합은 학교 친구, 뜻 맞는 동업자, 농민과 소비자가 힘을 모아 '우리를 위한 우리의 기업',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는 기업 형태이다.

2012년은 세계협동조합의 해이기도 하고, 2012년 12월에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다. 5인 이상만 모여도 협동조합을 조직할 수도 있다. 바가지 가격 없는 빵집 협동조합, 부동산 투기 없는 아파트 협동조합, 우리 가족 주치의가 되는 의료협동조합..... 대기업 간판이 세워진 건물을 치우고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씩 하나씩 짝 되어 나가길 희망한다.

저자가 말하듯, 99%의 경제적 약자들의 최대 무기는 공동행동이다. 공동행동을 함께 하실 분은 화요일에 녹색평론이 있으니 환경연 사무실로 오세요~

성명서

끊이지 않는 여수산단 환경안전사고 시민들은 불안하다. 관계당국은 환경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기업 여수화력발전처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2012년 10월 25일 09:24분경 여수화력 1호기 탈황설비 흡수탑 철거작업 중 용접 불통에 의한 내부코팅에 발화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회사의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다행히 인명피해와 물질 피해가 없어 화재가 진압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번 사고 역시 환경안전불감증이 보여준 대표적 사고라고 봐야한다. 이번 사고는 여수산단의 특성상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다. 관계당국은 빠른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오늘도 여수산단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로 여수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계속되는 산단사고가 대형사고의 조짐이 아닌지 정말 불안하다. 지금의 여수산단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다. 도대체 벌써 올해만 여수산단에서 일어난 환경안전사고가 몇 번째인가? 구미시에서 일어난 불산누출사고의 악몽을 잊었던 말인가?이쁜인가? 여수산단은 여수시민이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기업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발암물질 수은을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겠다고 혈안이 되어있다. 언제나 여수시민들이 여수산단의 환경안전사고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여수산단 기업들이 대답해야 한다. 우리는 여수산단에 대해 다시 한 번 묻는다. 당장 시민들에게 연일 발생되고 있는 환경사고에 대해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환경안전 불감증에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바이다. 관계당국은 여수산단의 환경안전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끊이지 않는 여수산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안전사고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2012년 10월 25일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순사건 추모사

64년 전, 해방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순간에 운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에 대한 위로와 추모의 정을 표현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두렵고 떨리는마음뿐입니다.

맑고 투명한 이 가을 날, 밝은 햇살 가득한 10월 하늘 아래서 공포와 충격 속에서 희생 당하신 모든 분들의 영령에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하고 위로의 마음을 드립니다. 영령들이시여, 64년 전 많은 분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령들의 희생이 빈번한 역사의 아픔을 잊지 않으셨던지 60여 년이 넘게 온존하고 번성하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도 돌아가신 분들께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까? 사실 우리는 민족 해방이라는 경사를 맞이하고도 부일 매국세력을 처단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들의 압제와 만행 속에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에 빌붙어 살던 반역 세력들이 해방된 지 60여 년이 넘게 온존하고 번성하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도 돌아가신 분들께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돌아가신 분들의 영령에 머리 숙여 추모의 염을 표합니다. 계신 저 세상 속에서라도 웃음 가득한 얼굴이기를 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돌아가신 모든 영령들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이